



거레와 함께 미래로

서울대소식

No. 277 / 1996. 6. 19 (수)

발행인: 선우중호 편집인: 안경환 편집: 서울대학교 기획실(전화 880-5086, FAX 889-7489)

교내주요소식

서울대법(안) 학내 의견 수렴 위한 워크샵 개최 6월 11일~14일 인문·사회·자연대에서

본교는 서울대학교법(안) 제정과 관련하여 동 법(안)에 대한 학내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워크샵을 각 단대별로 개최했다.

이 계획에 따라 6월 11일에는 인문대, 6월 12일에는 사회대, 6월 14일에는 자연대에서 각 대학 소속 교수들과 부총장, 기획실장, 서울대학교발전자문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법안에 대한 워크샵이 열렸다.

먼저 인문대 워크샵에서는 조남현 교수(국문학과), 노태돈 교수(국사학과), 황경식 교수(철학과) 등이 대학 견해 발표자로 참석하여, 이 법의 시행령이 조속히 마련되어 같이 논의에 붙여져야 하며, 민족문화원에 대해서는 설립

할 경우 명칭을 '한국학연구원'으로 해야 할 것이나 실질적인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학사교육원에 대해서는 기초과정 교육이 부실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현행의 단과대학 중심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보완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했다.

두번째로 열린 사회대 워크샵에서는 이정복 교수(정치학과), 하용출 교수(외교학과), 박명진 교수(신문학과) 등이 대학 견해 발표자로 참석, 인문대 교수들의 의견과 대체로 일치함을 전제한 후, 법안이 실용주의 및 기능주의에 치우쳐 새로운 발전 방향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그리고 대학 전체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각 단과대학의 자율성을 중시하는 것이 더욱 중요

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대내적 논의를 충실히 해야 법안의 대외적 설득력이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6월 14일 자연대에서 열린 워크샵에서는 전종우 교수(계산통계학과), 이준규 교수(물리학과), 홍승수 교수(천문학과) 등이 대학 견해 발표자로 참석하여, 학내 자율성을 확보해야 하며, 대학원 중심대학의 지향 및 기초학문 육성에 중점을 두어 대학 본연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학사교육원 및 민족문화원과 학술정보원 등에 대한 확실한 성격 규명과 평의회회가 총장 견제기구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기구의 성격을 규명한 상태에서 입법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기문 교수·김진세 교수 등 20명 명예교수로 새로이 추대

지난 5월 20일 열린 본교 명예교수 추대를 위한 명예교수선정위원회(위원장 최송화 부총장)의 추천에 따라 6월 5일자로 20명의 명예교수가 새로이 추대되었다. 이로써 본교의 명예교수는 1962년 의대 김두중 교수가 추대된 이래 모두 371명이 되었다.

이번에 새로이 추대된 명예교수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이기문 교수(국어국문학과)

▲김진세 교수(국어국문학과) ▲장병림 교수(심리학과) ▲김상주 교수(금속공학과) ▲김문한 교수(건축학과) ▲김극천 교수(조선해양공학과) ▲주봉규 교수(농경제학과) ▲신동소 교수(임산공학과) ▲심중섭 교수(임산공학과) ▲피천득 교수(영어교육과) ▲문용 교수(영어교육과) ▲이동승 교수(독어교육과) ▲김성근 교수(역사교육과) ▲이상섭 교수(약학과) ▲이명학 교수(기악과) ▲곽일용

교수(의학과) ▲이덕용 교수(의학과) ▲장윤석 교수(의학과) ▲김진태 교수(치의학과) ▲이정식 교수(치의학과)

「서울대소식」 하계방학 동안 3주간격 발행

하계 방학을 맞아 「서울대소식」은 3주 간격으로 발행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양지 바랍니다(다음 발행일 7월 10일).